[별지 서식]

제28차 이사회 회의록

1. 구분 및 차수 : 제28차 이사회

2.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9년 9월 9일(월) 17:00

○ 장　　소 : 충북체육회관 대회의실

3. 참석현황 : 재적 : 38명, 참석 : 28명, 불참 : 10명

4. 성원결과

○ 참석이사

- 회　장 :
- 부회장 : 한창섭, 김주섭, 김태종, 변재경, 오흥배, 조병태
- 이　사 : 이중근, 민영완, 한상묵, 김대연, 김숙종, 김영철, 김진욱, 남창현, 박노일, 이상용, 이영희, 이재만, 이종근, 연경희, 윤혜진, 정효진, 조문화, 최난나, 최종섭, 최준상, 최충진, 한병수
- 감　사 : 장종훈

○ 불참이사

- 회　장 : 이시종
- 부회장 : 김병우, 정도영, 한범덕
- 이　사 : 고승애, 남중웅, 안종태, 이영규,이정기, 홍향순
- 감　사 : 조용주

5. 부의안건

안건번호	안　건　명	의결결과	비 고
제1호안건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승인	
제2호안건	제 규정 개정 및 제정(안)	원안승인	

※ 심의사항 요약

1호 안건 : 2019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세입		세출		비고
구분	금액	구분	금액	
계	28,168	총계	28,168	
국고보조금 <대한장애인체육회> △2,528	△5,552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5,552	
	3,024	스포츠강좌 이용권	3,024	
도비보조금 1,296	1,296	스포츠강좌이용권	1,296	
		전국장애인체육대회	47,036	
		전문체육육성	△5,076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5,960	
		가맹단체지원	△36,000	
기타수입 <고용장려금> 29,400	29,400	시설보수비	14,000	
		자산취득비	9,400	
		차량유지비	6,000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계	1,875	계	1,875
기타수입 <그외수입>	676	우수선수육성	676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	1,199	퇴직적립금	1,199

2호 안건 : 제 규정 개정 및 제정(안)

(1)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규약 개정(안)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51조(사무처장의 직무)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1조(사무처장 및 대외협력본부장의 직무)	
(신설)	①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담당한다.	사무처장 및 대외협력본부장 직무(신설)
(신설)	② 대외협력본부장은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정무적사무를 담당한다.	

(2)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처무규정 개정(안)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3조(기구) 사무처의 기구는 사무처장과 기획총무부, 전문체육부, 생활체육부를 둔다.	제3조(기구) ---------- 사무처장과 대외협력본부, ---- ----------.	대외협력본부 (신설)
제6조(직렬) ② 별정직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처장 (신설) 2. 특별한 사유로 신설되는 직	제6조(직렬)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대외협력본부장 3. 2호 내용과 같음	대외협력본부장 (신설)
제7조(임무) ② 기획총무부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고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팀장은 직원을 지휘 감독하여 팀 업무를 총괄하고 제3조의 기구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무) ② 대외협력본부장은 ---------- ----------, 부장은 부원을 지휘 감독하여 부업무- ---------- ----------.	
(신설)	제31조의 3(대외협력본부장 임기) 대외협력본부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대외협력본부장 임기(신설)
제35조(급여 등) ② 사무처장의 급여는 기본연봉과 연봉 외 급여로 구분하여 매년 회장이 정한다. (신설)	제35조(급여 등) ② 사무처장은 지방공무원 3급 상당의 연봉을 지급한다. ③ 대외협력본부장은 지방공무원 4급상당의 연봉을 지급한다.	대외협력본부장 급여(신설)

○ 사무처 처무규정(별표1 사무처 정원표)

현 행

구 분	직 위	직 급	정원	비 고
합 계			12	
별정직	사무처장	3급	1	
(신설)				
일반직	부 장	5급	3	
	팀 장	6-7급	4	행정3, 기술1
	주무관	8~9급	4	

개정(안)

구 분	직 위	직 급	정 원	비 고
합 계			13	
별정직	사무처장	3급	1	
별정직·일반직	대외협력본부장	4급	1	신설
일반직	부 장	5급	3	
	팀 장	6-7급	4	행정3, 기술1
	주무관	8~9급	4	

○ 사무처 처무규정(별표11 출장여비 지급기준표)

현 행		개 정(안)	
구 분	준 용 등 급	구 분	준 용 등 급
임원, 사무처장	공무원 여비지급 구분표 제1호 해당금액	임원, 사무처장	변동없음
부장이하 직원	공무원 여비지급 구분표 제2호 해당금액1	대외협력본부장-- --	변동없음

○ 사무처 처무규정(별표6 유사경력 인정 환산표)

현 행

[별표 6]

유사경력 인정 환산표

구분	경 력 내 역	환산율
갑 경 력	·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처 근무기간 · 시·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근무기간 · 공무원 재직기간 및 군 복무기간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체육전공 근무기간 · (신설) · (신설)	100%
을 경 력	·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사무국 근무기간 · 지자체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사무국 근무기간 · 지도자(감독, 코치), 선수로 프로 또는 실업팀 활동기간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인솔단체 근무기간 · (신설)	80%
병 경 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장애인단체 및 시설 근무기간 · 법인, 단체 회사의 체육관련 근무기간	50%

개 정(안)

[별표 6]

유사경력 인정 환산표

구분	경 력 내 역	환산율
갑 경 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운전직렬중 대형버스 운전경력 · 경력직무와 당해직무가 동일한 경력기간	100%
을 경 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대형 화물차 운전 등 대형버스 운전에 준하는 경력(신설)	80%
병 경 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50%

(3) 전국장애인(동계· 학생)체육대회 격려금 운영규정(안)

□ 제정(안)

제 정(안)

전국장애인(동계 · 학생)체육대회 격려금 운영규정 제정(안)

제정 2019. 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장애인(동계 · 학생)체육대회에 충북대표로 출전하는 선수(팀), 단체를 대상으로 대회참가를 위한 "강화훈련 및 현지 격려금지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엄격하고 투명한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격려금의 지급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및 강화훈련 참가 선수 및 임원
2.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및 강화훈련 참가 선수 및 임원
3.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참가 및 강화훈련 참가 선수 및 임원
4. 전국장애인(동계 · 학생)체육대회 참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시도 선수단 운영본부
5. 동 · 하계 훈련 등 각종훈련, 전국규모대회 출전과 관련하여 회장이 특별히 인정한 자(팀)

제3조(지급시기) 격려금은 훈련 및 경기진출 상황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지급액) 훈련 및 현지 격려금 지급 기준은 "별표 1" 과 같으며, 예산 범위내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국장애인(동계 · 학생)체전 훈련 및 현지 격려금 지급기준

구 분	구 분	지급기준	금 액	비 고
전국장애인 (동계)체전	선수격려	전 종별 출전 선수 인원 10명 이하 종목	100,000원	
		전 종별 출전 선수 인원 11명 이상 종목	출전인원수 × 10,000원	
	임원격려	전 종별 출전 선수 인원 10명 이하 종목	100,000원	
		전 종별 출전 선수 인원 11명 이상 종목	200,000원	
전국장애 학생체전	선수임원 격려	전 종별 출전 선수 인원 10명 이하 종목	100,000원	
		전 종별 출전 선수 인원 11명 이상 종목	출전인원수 × 10,000원	
※ 현지 성적에 따른 추가 격려 범위 ○ 단체종목(개인단체 포함) 토너먼트 경기 8강 진출, 4강 진출, 결승 진출, 우승시 100~300천원 ○ 개인종목 메달 입상자 50천원				

제28차 이사회 회의록

□ 사무처(남양우 기획총무부장)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이사 38분 중 28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제28차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께서는 앉은 채 예를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동 국기에 대하여 경례 " ➢ " 바로 "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남양우 기획총무부장)
이사회는 본회 부회장이신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부지사님의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 한창섭(행정부지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제28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 의 사 봉 3타 -

□ 사무처(남양우 기획총무부장)
행정부지사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 이시종(충북도지사)
비가오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임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난주에 열린 제13회 충청북도장애인도민체육대회를 잘 치르는데 애쓰신 모든 관계자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근 우리 충북 장애인체육에 여러가지 좋은 소식이 있는 거 같은데요
우리 장애인 선수단이 역도, 사격, 축구 등 여러 전국대회에서 최고의 실력으로 우승을 했고,

올해 2월에 에코프로 장애인스포츠단이 창단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전국 최대규모의 한화큐셀 장애인스포츠단이 창단되서 충북에서는 장애인체육에 대한 관심이 달아오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장애인체육 발전에 장애인스포츠단 창단이 앞으로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10월에는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우리도가 지금까지 장애인체육에서는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2017년에 우승을 했고, 2018년에 준우승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충북의 명예를 갖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이 대회 때까지 최고의 컨디션을 계속 유지하고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체육회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폐막한 무예마스터십대회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충북도민 전체가 협조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로 성공적으로 잘 마친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계신 이사회 임원 분들께서도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한시간 내시어 이사회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사무처(남양우 기획총무부장)
이어서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한창섭(행정부지사)
먼저 사무처에서는 전차회의록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남양우 기획총무부장)
전차 회의록을 요약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 보고 사항으로는
지난 제27차 이사회는 2019년 4월 25일 11시에 충북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사 36명중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 보고 사항으로는

1. 제16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결과
2. ㈜에코프로 장애인스포츠단 창단식
3.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계획
4. 종목별 전국대회 출전결과

○ 심의사항으로는

1.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제 규정 개정 및 제정(안)을 심의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차회의록을 요약해서 낭독해 드렸습니다.

□ 한창섭(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전차회의록에 대한 이의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들 다같이 "없습니다."

□ 한창섭(행정부지사)
의견사항이 없으시면 전차회의록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 한창섭(행정부지사)
다음은 보고사항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처에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남양우 기획총무부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출전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회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익산시를 주 개최지로 전라북도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도 선수단은 13개 종목 284명(선수 142, 경기임원 및 관계자 142)이 출전해 금메달 60개, 은메달 48개, 동메달 38개를 획득해 역대 최고성적 종합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종합 2위를 차지했던 우리 선수단의 이번 대회 성적 상승요인으로는 우리도 강세종목인 역도종목의 선전과 육상 트랙·필드의 고른 메달획득, 전임지도자들의 찾아가는 지도를 통한 학생선수 경기력 향상, 출전 소속선수 담당교사의 적극적인 지도활동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종목별 입상 현황으로는 볼링 종합1위, 역도·육상·골볼 종합2위, 축구·디스크골프 종합3위

다관왕 부분은 3관왕 : 역도 7명, 2관왕 : 육상 9명, 수영 1명, 배드민턴 1명, 볼링 1명 등 학생선수단은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한화큐셀 장애인스포츠단 창단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30명의 장애운동선수를 고용한 ㈜한화큐셀에서 장애인스포츠단 창단식이 지난 7월 23일 S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장애인취업관련 스포츠단이 창단되는 두 번째 모범사례로 이시종 지사님을 비롯한 도내 각계각층 관계자 분들과 문화체육부 용필성 장애인체육과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언론 및 타시도 장애인체육회 관심을 받으며 성대하게 개최 되었습니다.

창단규모는 7종목 30명(지적축구12, 시각축구6, 수영1, 역도3, 조정3, 골볼2, 사격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종목별 전국대회를 비롯한 국제대회 출전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업팀 위주로 출전한 국제대회 출전결과입니다.

2019 슬로베니아 라스코 오픈탁구대회(박홍규선수 단-복식) 동메달 2개
2019 타이중 장애인탁구아시아선수권대회(김군해선수) 동메달
2019 일본오픈 장애인탁구대회(박홍규·김군해선수) 은메달 2개
2019 방콕오픈장애인탁구대회 금메달(정규영선수)을 각각 획득했습니다.

전국장애인체전 9연패를 목표로 하는 역도연맹은 제2회 대한장애인역도연맹회장기 전국장애인역도대회에서 금메달 35개, 은메달 19개, 동메달 13개를 각각 획득 하였습니다.
제9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기 전국지적장애인축구대회에 출전한 축구선수단은 일반부 금메달, 학생부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하 전국대회 출전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제13회 충청북도장애인도민체육대회 개최 결과보고입니다.
제13회 충청북도장애인도민체육대회가 9월 5일~6일제천시 일원에서 17개 종목으로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일간 개최되었습니다.

종합경기결과는 청주시 1위, 충주시 2위, 제천시가 3위를 차지하였고, 모범선수단은 청주시, 입장상은 충주시 화합상은 음성군이 차지하였습니다. 대회기간 제천까지 찾아 함께 성원해 주신 임원님들 덕분에 성황리에 대회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으며 역대 최대규모의 체육대회를 치루었습니다.

다섯 번째, 관련기관단체 인사에 따른 임원승계입니다.
안희철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장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신임 한상묵 과장이 당연직 이사로 잔여임기의 승계 건 입니다.

여섯 번째,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서울특별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우리도 선수단은 25종목 선수 423명, 경기임원 148명, 본부임원 24명 총 595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금메달 100개, 은메달 78개, 동메달 70개를 획득해 종합득점 135,000점으로 종합3위를 기필코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 한창섭(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의 사 봉 3타 -

□ 한창섭(행정부지사)

다음은 안건심의가 있겠습니다. 안건은 두건으로

제1호 안건으로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타 - 사무처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남양우 기획총무부장)

제1호 안건 2019년 제3회 추경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 국고보조금 (대한장애인체육회)
  ·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5,552천원 감액
  · 스포츠강좌 이용권 3,024천원 증액 합계 2,528천원 감액 내용입니다.

- 도비보조금은
  · 스포츠강좌 이용권 1,296천원 증액
- 기타수입 (장애인고용공단 2018년 4/4분기)
  · 장애인고용장려금 29,400천원 총 세입 28,168천원 증액 내용입니다.

세출은

- 국고보조금 (대한장애인체육회)
  ·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5,552천원 감액
  · 스포츠강좌 이용권 3,024천원 증액

- 도비보조금은
  · 스포츠강좌 이용권 1,296천원 증액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47,036천원 증액이고
  · 전문체육육성 5,076천원 감액입니다.
  ·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5,960천원 감액
  · 가맹단체지원 36,000천원 감액으로 편성하여 합계 1,296천원 증액 입니다.

- 기타수입 (장애인고용장려금)
  · 시설보수비 14,000천원 증액
  · 자산취득비 9,400천원 증액
  · 차량유지비 6,000천원 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은 기타수입 (그외수입) 676천원 증액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 1,199천원 증액
세출은 우수선수육성 676천원 증액
퇴직적립금 1,199천원 증액 입니다.

이상으로 제1호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 한창섭(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1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창현이사(前 충청북도 정무특별보좌관)
국고보조금은 세출에서 감액된 부분이 5,552천원 입니까?
국가보조금 세입이 왜 5,552천원이 빠졌나요?

□ 사무처(남양우 기획총무부장)
이 부분은 당초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국고보조금과 도비가 86,000천원이 되는대요. 31,000천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보조해 주기로 해서 당초 세입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국 참가시도 선수들이 늘어나는 바람에 우리 충청북도에 배정된 금액은 최종 25,428천원 밖에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학생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세입 잡았던 31,000천원 중에서 5,552천원을 감액처리 하는 부분입니다.

□ 남창현이사(前 충청북도 정무특별보좌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빠졌는데 세출 쪽에 금액이 마이너스로 되었는데 앞으로 세출 쪽에 마이너스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원할 의사가 있는건지 아니면 계속 뺄건지

□ 사무처(남양우 기획총무부장)

이 사업은 지난 5월 달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당초 31,000천원 세입을 잡았던 부분인데 대회가 지난 5월 달에 끝났습니다. 저희한테 최종예산 내려온 것은 25,428천원 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5,552천원을 감액처리 하고자 해서 오늘 계상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 남창현이사(前 충청북도 정무특별보좌관)

도비보조금도 돈이 빠져있는데

□ 한창섭(행정부지사)

이게 보니까 세입이 5백이 줄었는데 세출에서는 5백이 두 번 빠졌으니까 천만원이 결국은 지출이 적게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장애학생체육대회에 국고보조금 5백이 감액이 되니까 도비보조금 5백이 세출에서 빠졌거든요

□ 사무처(남양우 기획총무부장)

지금 회의책자 13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나눠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어요.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3,024천원 들어오고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건은 5,552천원을 감액 처리하는 거고 도비보조금에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도비에서 5,960천원이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당초 대비 마이너스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 한창섭(행정부지사)

그럼 세출이 천만원이 줄었다는 거죠???

□ 사무처(남양우 기획총무부장)

기금하고 도비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 한창섭(행정부지사)

세입이 들어들기 때문에 세출이 그럼 세출이 줄어든건데 실지로 그만큼 필요없어졌다는 거죠

□ 이중근(사무처장)

왜 이런 현상이 오느냐면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학생체육대회에 충청북도 얼마 가상예산을 승인을 했는데 실제로는 5,552천원이 감액조치가 되었어요. 대장체에서 내려오는게 그래서 감액 처리가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고에서 보면은 스포츠강좌 3,024천원 없던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528천원이 감액조치가 되는 겁니다.

□ 남창현이사(前 충청북도 정무특별보좌관)

내용은 알겠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도비보조금 이런데에서 빠지는거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지원 할 생각은 없는지 완전히 빠지는 건지 필요 없다는 건지

□ 이중근(사무처장)

총체적인 예산에서 목간변동을 가져왔습니다. 뒷부분 세부예산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텐데요 가맹단체 지원금만 36,000천원을 감액조치 했는데 이 내용은 시군에 우수선수 육성을 1개 시군에 5,000천원씩 55,000천원을 세웠는데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비는 이 안에서 목간변동 그리고 스포츠강좌 이런 것들은 추가로 예산이 배시되어 그렇게 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남창현이사(前 충청북도 정무특별보좌관)

알겠습니다.

□ 한창섭(행정부지사)

지금 목간전용이라고 하시면 다른데 가맹단체 지원 36,000천원이 빠지잖아요 다른 항목을 세출 한다는 거죠? 그것도 추경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이중근(사무처장)

그것도 세부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 전국체전이 서울에서 개최되다 보니까 숙박지가 천태만상입니다. 그리고 식비도 그렇게 해서
세부예산서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 한창섭(행정부지사)

장애인체육대회 47,000이 증가라고 나타난 거죠? 네 이제 되었습니까 다른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 한창섭(행정부지사)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호 안건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타 -

□ 한창섭(행정부지사)

다음은 제2호 안건으로 제 규정 개정 및 제정(안)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타 - 사무처에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남양우 기획총무부장)

제2호 안건 제 규정 개정 및 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규약 개정(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전국대회 상위입상을 통해 높아진 장애인체육회 위상에 맞추어 대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충원으로 장애인체육 사업확대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위한 대외협력본부장 직제를 신설하는 규약 개정입니다.

관련규정은

-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규약 제51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1처 3부 ⇨ (변경) 1처, 1본부, 3부로 개편하는 내용과
대외협력본부장 직무범위를 신설(제51조) 하는 내용입니다.

2.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처무규정 개정(안) 입니다.

개정사유는

대외협력본부 신설에 따라 기구와 직렬을 정비하고 대외협력본부장의 임무와 임기, 급여규정을 신설하고

현재 사무직 위주의 유사경력 인정 환산표에 운전직 유사경력을 추가하여 직원들의 균형적인 보수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규정은

사무처 처무규정 제3조, 제6조, 제7조, 제31조의3, 제35조
별표1(사무처 정원표), 별표11(출장여비 지급기준표)
별표6(유사경력 인정 환산표)입니다.

주요골자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대외협력본부 기구 및 신설(제3조 기구, 제6조 직렬)

* 1처, 3부 ⇨ 1처, 1대외협력본부, 3부

대외협력본부장 임무 및 임기 신설(제7조 임무 , 제31조의3 임기)

대외협력본부장 급여기준 마련(제35조 급여 등)

사무처 정원표 및 출장여비 지급기준표 개정(별표1, 별표11)

대형버스 운전경력 신설(별표6) 등 입니다.

3. 전국장애인(동계·학생)체육대회 격려금 운영규정 제정(안)

개정사유는

전국장애인(동계·학생)체육대회 출전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의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회종류 및 지급금액을 명시하여 격려금 지급을 투명하고 공정하게하기 위함입니다.

관련규정은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규약 제4조 제6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전국장애인(학생·동계)체육대회 출전선수단 격려금액 산출과 단체종목 토너먼트 경기 8강, 준결승, 결승 진출 시 추가로 격려 하는 내용 입니다.

이상으로 제2호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 한창섭(행정부지사)

제2호 안건은 개정(안) 2건과 제정(안) 1건 으로 3개 규정의 제·개정(안)입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중근(사무처장)

대외협력본부장 직제개편에 대해서 이사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가 생활체육 사업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전문체육도 역시 확대가 되고 우리가 충북도내 장애인이 9만5천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체육현장에 나와 있는 장애인분들이 10%에 불과합니다.
시설에 계신 분들이나 재가 장애인이 10%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런 장애인 분들을 현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시설입니다.
두 번째가 지도자, 세 번째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인 부분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대외적인 활동이 되어야 하는데 대외협력본부장제를 이번에 도입을 해서 좀 더 확산되고 실제 장애인이 우리 체육현장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런 기구개편을 통해서 우리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에서 기구개편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생활체육사업을 137개 사업을 하는데 실제인원은 3,648명이 지금 현장에 함께하고 있고 또 38명의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장애인분들과 함께하는 인원이 3,453명, 전문체육에 있어서 등록선수가 720명입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8,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 이예요. 그런데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할 때 최초 장애인체육회가 태동했을 때 장애인 4~5%가 현장에 있었는데 10년이 지나서 20%, 25%라고 하는 얘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숫자놀음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제기도 했었지만 그런데로 우리 충청북도 장애인체육은 현재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 실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우리 생활체육이 좀 더 활성화 되고 전문체육은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대외협력체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해서 이런 기구개편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 남창현이사(前 충청북도 정무특별보좌관)

재정이 뒷받침 되려면 이번에 대외협력본부장이 새로 신설 되는거죠?
이분이 공무원 4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면 연간 1억정도 소모 될텐데 도나 국비에서 지원이 되나요?

□ 이중근(사무처장)

지금 현재 2020년도 사업을 위해서 기구개편을 미리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2020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창섭(행정부지사)
내년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네"

□ 남창현이사(前 충청북도 정무특별보좌관)
규모적으로 전체적으로 업무가 늘어나고 할 때 조직도 개편해서 늘리고 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대외협력본부장을 늘리는 것이 맞는 건지 밑에 직원들을 증감시켜서 하는 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고 사무처장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대외협력본부장하고 나눠서 한다는 거 아네요?

□ 이중근(사무처장)
지금 현재 하는 것 보다 시설이라든지 장애인단체 협력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방안입니다.

□ 남창현이사(前 충청북도 정무특별보좌관)
어찌 되든지 간에 1억원이라는 금액이 증액이 되는데 그걸 어디서 보충이 되는 건데 말씀해 주세요

□ 이중근(사무처장)
명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체육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직원이 금년도 지난해 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외협력 본부장의 필요성과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기구개편을 하는 것이 장애인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특히 시설문제와 실업팀이 현재 기업체의 실업팀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한화큐셀과 에코프로에서 스포츠단을 창단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위의 기업체에서도 장애인 실업팀으로 발전 창단하는 데에 이런 것들이 대외협력본부장이 업무를 주도적으로 해야 만이 우리 장애인체육의 앞날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기구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 남창현이사(前 충청북도 정무특별보좌관)
필요예산 1억 정도가 우리 도비에서 지원되는 건지 국비에서 지원되는 건지

□ 이중근(사무처장)
사무처 기구가 사무처장이 3급이고, 부장이 5급입니다. 4급이 없는 상태 입니다. 사무처장, 차장, 본부장 이러한 타시도의 유형이 있는데 우리는 대외협력본부장으로 보수문제는 명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공모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추진을 하려고 기구개편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은 도와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이사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종근(유원대 교수)

지금 보니까 장애인체육회가 많이 커졌습니다. 실업팀도 생기고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대외협력본부장님을 신설 하겠다는 뜻 인데요. 예산확보 확실히 하십쇼 열심히 하십쇼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 최난나(충북장애인부모회장)

지금 본부장님이 생기면서 예산을 확실히 확보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 예산을 쓰시겠다는 건지 왜냐하면 41쪽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급여, 상여금 계속 나와 있는데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54쪽 전국장애학생체전에 보면 선수 격려금, 임원 격려금은 있는데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격려금이 같이 묶여져 있거든요 학생들은 왜 이렇게 된 건지 궁굼하고, 임원들도 선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선수들의 격려금이나 보상이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학생들은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다니면 자체 부모님들이 돈을 내서 교육을 해요. 특수학교를 다닐 경우 체육회에서 파견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학생들이 메달을 따면 1원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주시고 선수를 우선으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미움 받을 거 같긴 한데 임원들은 선수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이중근(사무처장)

현재까지 격려금 규정을 안 해놓았기 때문에 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지난해까지 선수들 격려금과 입상자 포상금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이번에 학생체전 입상자들에게 처음 포상금도 지급하고 특히나 전문지도자 순회코치 3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전국체전, 동계체전, 학생체전에 관한 격려금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원수에 비례를 안 할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전국대회 출전횟수도 한 종목에 무한정 할 수가 없기때문에 횟수를 제한을 하고 인원수로 격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지도자들도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수에 기준을 가지고 정한 기준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난나(충북장애인부모회장)

임원 격려금이 장애학생체전에는 왜 묶여서 같이 있냐? 임원격려금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 이중근(사무처장)
선수 임원격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학생체전은 전국체전에 비해 규모가 적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주시면 되겠습니다.

□ 남창현이사(前 충청북도 정무특별보좌관)
임원의 규정이 뭡니까? 임원이라는 것은 뭘 얘기 하는 겁니까?

□ 이중근(사무처장)
임원은 어쨌든 지도자, 규정에 임원으로 등록 할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지도교사, 감독, 실제 선수를 지도하는 이렇게 통틀어서 임원이라 표현을 합니다.

□ 최종섭(충북장애인육상연맹회장)
1처, 3부에서 1처, 1대외협력본부, 3부로 말씀을 하시는데 직원들에 비해서 일이 많고 업무의 시달림을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기회에 대외협력부본부장을 두는 기회에 전담부서를 두어서 1처, 1대외협력분부, 4본부로 늘이는 게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이중근(사무처장)
우리체육회 입장에서야 그렇게 늘어나면 너무 좋죠 그런데 대외협력본부장 이 내용도 몇 달을 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한계도 있고 이렇게 돼서 일단은 출범을 하고 차지에 증원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같이 되질 않습니다.
최종섭 이사님이 배려해 주셔서 고마운데 도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대는 한계가 있습니다.

□ 최종섭(충북장애인육상연맹회장)
여기 부지사님 오셨는데 예산 대비해서 편성할 때 하는 게 어떤가

□ 한창섭(행정부지사)
지금 본부체제를 안가지고 대외협력기능이 늘어난다는 건 불허하는 것도 검토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사무처에서 그걸 원치 않을 수 도 있을 거 같아요.
저도 지금 이사님 생각에 조금 그런 체제도 괜찮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회협력본부는 4급으로 만들었는데 부장은 5급이거든요 그 예산 범위에서 직원을 늘리는 것도 사무처에서 원할지도 모르겠어요.

□ 최종섭(충북장애인육상연맹회장)
이번 기회에 된다고 하면 좋은데 부지사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4부가 될 수 있도록

□ 한창섭(행정부지사)
그러면 이거 부결 할까요? 규정을 부결을 시키고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 최종섭(충북장애인육상연맹회장)
부지사님께서 자신하신다면 이야

□ 이재만(충북농아인협회장)
부본부장은 임원 임기대로 하는 건지 공개채용을 말씀하셨는데

□ 이중근(사무처장)
연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한창섭(행정부지사)
그것도 제가 질문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임원으로 생각을 해서 임기를 준건가요? 별정직이기 때문에

□ 이중근(사무처장)
여기 유인물에도 나와 있듯이 대외협력본부장은 직제상 4급으로 임기는 2년으로 공개모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창섭(행정부지사)
연임의 제한은 어떻게 둘 겁니까? 몇 회 이런거는

□ 이중근(사무처장)
일단 연임으로 되어있어요 그런 건 제한이 없고요

□ 한창섭(행정부지사)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중근(사무처장)
지금 사무처장도 그렇고 연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외협력본부장은 꼭 별정직 뿐 만 아니라 우리직제 일반직에서도 대외협력본부장으로 승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폭넓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한창섭(행정부지사)
그러면 임기가 그렇게 되면 안되죠 일반적인 승진하고는 정년은 자를겁니까?

□ 이중근(사무처장)
일반직으로 가는 것은 충청북도체육회가 예가 되는데 정년 거의 또 그 속에서 체육회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능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일반직 직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반직과 별정직의

□ 한창섭(행정부지사)
명확히 하셔야 되요. 임기 문제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부 승진에서 나중에 부장 중에 한사람이 4급 승진 하잖아요 그 사람 정년까지 본부장을 하겠다는 말씀이 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하고 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 이중근(사무처장)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체육회 같은 경우 1~2년 남겨놓고 퇴직을 하고 별정직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지사님 말씀을 일반직이 정년 이전에 본부장으로 갔다가 정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정년이 되기 전에 그만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까지는 일반적으로 일반직에서는 그렇게 진급되기가 좀 어렵죠

□ 남창현이사(前 충청북도 정무특별보좌관)
본부장이 별정직인가요? 승진하는 건가요?

□ 정효진(충북체육회 사무처장)
충북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저희들의 경우 사무처장과 차장이 있습니다.
차장이 여기 본부장처럼 4급 인데요 현재 별정-일반으로 되어있지만 별정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와 똑같이 임기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일반직에서 승진하는 그리로 사무처장은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직원들은 안에서 승진하는 일반직이 올 때는 별정직으로 돌려서 임기가 적용됩니다. 4년으로 2년 2년 합쳐서 4년

□ 이중근(사무처장)

연임으로 되어있습니다.

□ 한창섭(행정부지사)

운영상의 묘인데 정년 가까이 4~5년 남으신 분들은 아마 별정으로 해서 승진을 시키고 하실 거예요 그런 전제를 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 같아요 그건 다 고려하는데 그렇다고 40대를 본부장으로 못 안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임 2번하고 4년을 하게 되면 거의 정년을 맞추겠다 이 말씀이신데 지금 처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저는 체육회 입장에서 정확히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본부장 체제를 일반체육회과 같은 조직체제로 가다보니 이런 논의가 된겁니다. 사실상 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규정을 보자고 하는 이유가 사무처장 밑에 본부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본부장이 부장을 지휘할거죠

□ 이중근(사무처장)

그런 내용이 직제 상 처장, 차장, 3개부 이것이 아니고 대외협력본부장은 옆으로 좀 기구표를 옆으로 한다면 3부의 옆으로 대외협력에 관한 업무만 관장할 수 있도록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 민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민영완입니다. 체육과에서 체육회와 협의를 할 때 장애인체육회에서 승진해서 올라간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장애인체육이나 장애인 여러 계통의 부분에 있어서 소통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대외협력본부장 사무처 직위를 지휘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선수도 있고, 일반장애인도 있고, 시설장 이런 부분에 소통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예산도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 이런 취지로 공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 논점이 승진자리나 직원들을 지휘 한다는 가 이랬다면 저희들이 동의하기 어려웠겠죠

도에서 체육과의 입장에서는 그런 쪽에서 개념을 해서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직원들을 지휘 할 때는 처장 한분이면 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다만 체육을 하다보니 인사라든가 장애인계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분이나 전문가가 그쪽 부분에 공모를 해서 대외협력본부장이 된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예산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된 상황으로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 한창섭(행정부지사)

체육진흥과장 취지대로 처음 만드는 조직이니까 잘 운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지휘체계가 아니라 본부장 보장하는 체계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운영을 해보시고 체육회와 같이 필요한 부분은 추후에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만(충북농아인협회장)

채용관련으로 공개채용 방안은 이해가 되는데 채용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면 우리는 장애인체육회에 있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인단체 내에서 더 잘 알지 않을까 해서 인센티브가 있는 채용을 추진 하실건지

□ 이중근(사무처장)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시작을 하였습니다. 대외협력본부장을 그래서 그런 건 공모를 할 때 그런 것 들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 시설이라든지 또 외부 기업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창섭(행정부지사)

처장님 말씀하신대로 애초부터 검토를 시작한 걸로 알고 저도 있거든요. 그렇게 나중에 채용할 때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 최난나(충북장애인부모회장)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분들이 체육을 많이 하잖아요. 전문성을 띠고 선수로 나가서 출전하고 장애인체육회 일환으로 활동하는데 장애인체육회에 근무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관점에서 지켜볼 내용으로 장애인이 반드시 그 자리에 들어왔으면 좋겠고 장애가 있는 체육을 하신 분 일반 직원들이 승진하는 목적이라니까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직에서 좀 젊으신 50대 초반분이 별정직으로 갔어요 그분이 별정직으로 갔다가 퇴직하시는 건가요? 연임을 해서 아니면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는 건지 자리를 차지하려고 밖에 안보이거든요 장애인단체는 그런 쪽이 아니라는 걸 거기에 대한 명확하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중근(사무처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부연설명을 해 드린대로 장애인단체와 쉽게 말해서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당사자가 소통이 더 잘 되겠죠 그런걸 감안해서 공고할 때 이재만회장님이 건의한 거 최난나 이사님이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두루 두루 다 이해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난나(충북장애인부모회장)
규정에 넣어 주세요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왜 그걸 못하시죠?

□ 이중근(사무처장)
그거는 좀 한계가 있는 거 같애요. 그렇게 까지는 한계가 있는 거 같고 실제에 들어가서는 취지가 그렇게 해서 도하고 협의할 때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드린 겁니다.

□ 한창섭(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운영할 때 지금 이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처음 첫 번째 채용은 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난나(충북장애인부모회장)
가다가 이제 지사님이 또 ... 장애인이 없어요 장애인체육회에

□ 김진욱(前 장애인탁구선수)
그거는 무리한 요구 같아요

□ 한창섭(행정부지사)
지금 말씀하신 그런 채용조건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그러니까 운영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저희들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 김영철(충북장애인사이클연맹회장)
다른 이야기 인데요 이번에 현지격려금 지급규정 관련으로 격려할 때 쓸때는 많을겁니다. 그런데 항상 부족해요 예산을 보면 보험금이 있는데 훈련이나 대회 중에 다쳤을 때 보험을 드는데 보험금이 4백만원 전년도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연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선수가 다치면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연맹에서 그 선수의 비용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부분이 많지만 격려금을 신설하기 전에 먼저 어떤 걸 해야 할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선수들이 다쳐서 그거 누가 다 책일 질겁니까? 결국은 지금 도에서도 책일 질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연맹들이 알다시피 다들 자그마합니다. 연맹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금에 대해서 대폭 상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전부터 계속 생각했던 내용인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이중근(사무처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사이클 선수가 대회전날 연습을 하다가 다쳐서 얼굴에 골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도 갔었고 이 이후에도 회장님 이하 임원들이 그 선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도 주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사무적으로 하는 데 한계가 없잖아 있어요. 금년도에는 전국체전 선수들은 연습기간까지 보험을 100%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회기간은 당연히 들었고요 만에 하나 어떤 예기치 못한 연습기간이나 대회출전 기간에 그런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보험은 앞으로 다른 어느 예산보다도 우선시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사이클과 게이트볼에서 비가 와서 화장실 가다나 넘어지셔서 또 골절이 되서 고생하시고, 사이클의 경우 시작장애인 분인데 생업의 문제와 수입의 문제도 있어서 김영철 회장님이 도와주셨는데 염려해 주시는 대로 앞으로 보험 문제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우선시 예산을 배정해서 사후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연습기간까지 보험을 100%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병수(충북장애인당구협회장)

처장님 말씀이 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했는데 기명으로 가입을 한겁니까?
무기명으로 가입을 한겁니까?

□ 이중근(사무처장)

선수전체 포괄적으로는 안되고 전국체전 출전선수를 기명으로 가입하였습니다.

□ 한창섭(행정부지사)

2호 안건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었고 사무처에서는 특별히 대외협력본부장 채용과 관련하여 이사님들이 제시해준 의견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채용하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본부장 관련으로 이사회 할 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준상(충북신체장애인복지회장)

대외협력본부장제도 관련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정사항이 언제까지 되는 건가요?

□ 이중근(사무처장)

오늘 이사회 통과가 되면 기구개편이 되고 명년도 사업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최준상(충북신체장애인복지회장)
그런데 날짜가 길지 않은 거 같아서. 지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최난나 이사님 말씀대로 장애인으로 국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결정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 이중근(사무처장)
잘 알아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전국체전 끝나도 금년 안에 공고가 나가고 지난번에도 사무국 직원을 채용을 할 때 장애인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적용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이번에 대외협력본부장에 대해서는

□ 최준상(충북신체장애인복지회장)
우리는 일반체육회가 아닌 장애인체육회 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 만큼은 사무처장 체제를 대외협력 체제를 만드는 거니까 굳이 장애가 많은 장애를 갖고 있는 거 보다도 경증장애인에게 라도 그런 사람들이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이중근(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최준상 이사님, 최난나 아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난나(충북장애인부모회장)
가산점이 몇 점이나 주고계세요?

□ 한창섭(행정부지사)
그 구체적인 사항은 사무처에 맡겨주시고 같은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 최난나(충북장애인부모회장)
장애인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체육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 이중근(사무처장)
지금 현재 정식직원은 한분이고 서비스팀장 해서 두분이 있어요

□ 최난나(충북장애인부모회장)
총 몇 분이세요 직원이?

□ 이중근(사무처장)
12명입니다.

□ 최난나(충북장애인부모회장)
12명중에 두명밖에 안계신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역도를 예를 들어보면 중증장애인이 금메달을 계속 따잖아요
그러면 역도 지도는 그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팀장이나 지도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채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비장애인 분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 이중근(사무처장)
장애인 체육지도자를 하는 대 이렇게 뽑는대는 국가자격이 있어야 해요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진 그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아니라면 당장 뽑아들이죠
그게 제일 문제예요 생활체육지도자가 정부에서 계속 늘여주고 있는대도 수요와
공급이 맞질 않습니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 최난나(충북장애인부모회장)
반드시 그럼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게 되있나요? "네"
충북만 그런가요? 아니면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 이중근(사무처장)
어쨌든 장애인분 중에서 엘리트 선수출신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제가 책임지고
뽑겠습니다.

□ 이재만(충북농아인협회장)
격려금 관련으로 수화통역사 같은 경우 임원에 포함이 되느냐? 얼마전 제천에서
장애인도민체전에 통역사분들이 회원단체 임원으로 간걸로 알고 있어요
임원격려금에서 통역사도 포함이 되느냐

□ 이중근(사무처장)
통역사를 임원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거 같습니다.
또 청각종목에만 통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제천에서 격려금 격려차원에서는 임원으로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청각장애인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우리가 행사할 때 통역을 할 때 이번 제천에서 통역사를 수화통역센터 제천지부와 연락을 한 거 같은데 도하고 협의를 해달라는 내용도 제가 접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답을 드렸습니다.

□ 이재만(충북농아인협회장)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청각장애인이 참가하는 경기장에는 수화통역사가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충북장애인도민체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각 경기를 관람하는 것도 청각장애인이 있을거고
그런데 너무 경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리는거고

□ 이중근(사무처장)
네 그게 현실입니다. 어쨌든 전 경기장에 수화통역분을 모시고 하면 좋은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청각장애 종목은 그나마 배치를 했고 또 공식적인 큰 행사 다수가 모인 곳에는 수화통역사를 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청각 선수뿐만 아니라 관람객을 위한 수화통역사 배치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재만(충북농아인협회장)
처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사무국에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처장님께서 잘 이해하고 계신 거 같아서 다행이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해달라고

□ 이중근(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청각축구대회 출전할 때 예산은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수화통역사 동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만(충북농아인협회장)
도민체전은 충북에서 제일 큰 장애인체전이라서 통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사님들께서도 다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각 선수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 이중근(사무처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 남창현이사(前 충청북도 정무특별보좌관)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처장님 이거 해주세요

□ 한창섭(행정부지사)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신 말씀을 포함해서 이 안건하고 직접관련 사무처에서 검토해서 나중에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2호 안건 제 규정 개정 및 제정(안)은 원안대로 승인을 하되 오늘 나온 규정 개정(안)과 관련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타 -

□ 한창섭(행정부지사)
시간이 많이 좀 지났는데요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병수(충북장애인당구협회장)
식사하면서 하시죠

□ 한창섭(행정부지사)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말씀 이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정 체육회는 장애인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무처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사무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이사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